

지역 현안 ‘군공항 이전 TF’ 구성·인사 호남출신 대거 발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안정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TF)를 대통령실에 꾸리는 등 지역 현안 챙기기에 열심이다. 또한, 내각 구성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도 광주·전남 인사들이 고르게 포진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주가 상승 등 경제 회복에도 매진하고 있고, 속도감 있게 정상 외교에도 나서면서 국정안정과 경제, 외교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안정, 사회 통합 등의 과제는 풀어야할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 남다른 관심=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은 광주·전남에도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 길 열어…장·차관·대통령실 지역 인사 포진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 최대 과제…장관들 청문회 정국 고비 될 듯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법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해당 지자체장을 한 자리에 모아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내놓은 의미있는 이벤트였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강조했고,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TF 대통령실 내 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산단 조성, 규제완화, 재생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송배선망 구축,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며 “특히 광주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나”라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특히 광주시·전남도와는 실시간 협의를 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주고받은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선이 단행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18명)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15명)급 총 33명 중 지역별로는 호남(12명)이 가장 많이 배정됐고, 광주·전남 출신은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지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

관(전남·광주일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광주·전남여고) 전 질병관리청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여수) 국회의원이 내각에 포진됐다.

또 위성락(장흥) 안보실장, 김용범(무안) 정책실장, 황인권(영광) 경호처장, 송기호(고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나주) 등이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게 됐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의 인사와 총무, 상황실 등 실무 라인에도 광주·전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지역의 힘을 키우고 있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시급=이재명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력과 진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무와 실용 중심의 인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구성 과정에도 ‘일 중심’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농업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 과정에도 ‘일에 대한 평가’가 배경

이였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당선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보름 만인 6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경제 관련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회복 기미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숙제는 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요도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야 하는 숙제도 이 대통령 앞에 놓였고, 인선 마무리 단계인 장관들의 국회 청문회 정국도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진영 간 갈등 해결도 이 대통령의 중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앞둔 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 나선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처음 서는 자리이자, 대내적으로 맞이하는 첫 ‘빅 이벤트’성 행사인 만큼 이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통상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이뤄져 왔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의 지가 강해 이전 사례보다 대폭 이른 시기에 회견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한 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이어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행보와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방문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마무리 수순인 내각 구성 결과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민생·경제 중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 텐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친후 곧바로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와 오찬에 이은 것이다.

/연합뉴스



정책과제 전달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서양진 원내대표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 이용 기업들 줄 선다

올해 GPU 사용 경쟁률 2.69대 1
4년 간 총 611건 논문 데이터화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내에 조성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드러난 광주의 AI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는 달리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고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 2025년도 GPU(그래픽카드) 사용을 위한 지원 경쟁률은 2.69대 1이며, 고성능 GPU인 HPC의 경우 경쟁률은 5.2 대 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I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국내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공모사업에서 총 1946개의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총 261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한달 평균 40개가 넘는 과제들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11건의 논문(국내논문 181건, SCI논문 150건, 국제학술논문 280건)을 데이터화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GPU를 대량으로 구매해도 꽃을 꽂아 놓는 것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에는 2000장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추가로 초거대 국가AI컴퓨팅센터 건

립을 광주에 추진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구매할 H200급 GPU를 탑재할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무료 운영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AI산업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공공AI인프라의 역할”이라면서 “이는 AI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고 전했다.

국가 주도의 공공AI인프라에 대한 사용료가 있다면 AI산업에 뛰어든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실제 운영이 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현재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100%가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AI데이터센터는 지난해 연말 AX실증 2단계 사업을 준비중이었지만, 계엄으로 인해 정부예산이

끊겨 잠시 운영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사인 NHN이 남은 자원을 잠시 민간기업에게 판매하려 했지만, 광주시가 추경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데이터센터의 남은 자원을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잡아둔 것이다. 추후 정부 1차 추경에서 국비 88억원을 확보해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은 모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현황자료를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AI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AI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이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광주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